

기신사상특강 발표문

불교학과 불교교학 전공 박사 2학기

2025126986_채철호(청옥)

목차

1. 세계 철학사에서 분황 원효의 지위	1
2.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분황 원효의 위상	2
3. 분황 원효에게서 『금강삼매경론』의 의미와 가치	3
4. 『금강삼매경론』의 원문과 번역과 주석	4
5. 『금강삼매경론』의 내용과 분석	22
6. 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특징과 영향	29
7. 별첨 1. 『법화경』 「신해품」	29
8. 참고문헌	44

1. 세계 철학사에서 분황 원효의 지위

원효(元曉, 617~686)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루이스 랭카스터(Lewis R. Lancaster)를 시작으로 원효의 저술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원효는 한국 불교사 내부의 인물을 넘어 세계 불교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원효 연구의 국제화는 그의 저술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이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찰스 밀러(A. Charles Muller)가 『이장의(二障義)』를, 쩡투웬(Nguyen, Cuong Tu)이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과 『중변분별론소(中邊分別論疏)』를, 댄 러썬스(Dan Lusthaus)가 『판비량론(判比量論)』을 각각 번역하였다. 이 밖에도 『대승기신론회본』을 비롯한 주요 저술들의 번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찰스 밀러와 샘 베르메르스(Sam Vermeersch)가 참여한 『Wonhyo : Selected Works』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원효 사상의 핵심을 소개하는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된다.

북미 학계에서 원효 연구에 기여한 주요 학자로는 루이스 랭카스터, 로버트 버스웰, 찰스 밀러, 리처드 맥브라이드, 피터 리, 샘 베르메르스, 베르나르 포 등이 있으며, 한국계 학자인 박성배, 오영봉, 김종인, 장왕식 등도 원효의 사상과 한국 불교의 특성을 국제 학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¹

따라서 원효는 한국 사상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국제적 연구가 이루어진 인물 중 하나이며, 세계철학사적 재조명이 가능한 사상가이다.

2.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분황 원효의 위상

원효(617 - 686)의 불교 사상은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 속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의 사상은 중국불교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원효의 사상은 단순히 신라불교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불교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원효는 중국불교의 다양한 사상 전통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혜원(523 - 597)²의 사상은 『이장의』를 비롯한 그의 저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승기신론』 해석에서

¹ 김지연(2016), 「북미불교의 원효 인식과 이해 : 로버트 버스웰, 박성배, 찰스 밀러, 리처드 맥브라이드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9호, 불교학연구회, pp.60-62.

² 지론종 남도파

『능가경』을 중시하는 태도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천태 지의(538 - 597)의 지관(止觀) 이론과 교판(敎判) 사상은 『기신론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이는 원효와 지의가 교학 체계에 대한 인식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길장(549 - 623)은 원효의 화쟁 사상 형성에 중요한 사상적 자원이 되었다. 한편 원효는 신유식 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사상적 균형을 도모하였다. 또한 그는 의상을 통해 새로운 화엄 사상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사상 체계에 통합하였으며, 중국 정토교와 삼계교의 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상적 수용과 재구성의 중심에는 원효의 핵심 개념인 화쟁이 자리하고 있다. 화쟁은 불교 이론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사유 방식이다. 원효는 중국불교의 사상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종합한 사상가로,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의 전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³

3. 분황 원효에게서 『금강삼매경론』의 의미와 가치

『금강삼매경론』은 원효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저술이다. 현존하는 원효의 다른 저작들에서 『금강삼매경』이나 『금강삼매경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저술은 적어도 그의 말기에 집필되었을 가능성이 크면, 나아가 최후의 저작일 가능성도 높다. 사상가에게 말기 저술이 지니는 사상적 결산의 의미를 감안할 때, 『금강삼매경론』은 원효 사상의 집약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금강삼매경』은 삼매를 핵심 주제로 하는 선적(禪籍)이며, 이에 대한 원효의 주석서인 『금강삼매경론』 또한 선(禪)에 대한 이해를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이는 곧 원효가 이 저술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선의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총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³ 최유진(2018), 「원효와 중국불교」, 『동아시아불교문화』 36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p.102.

시 말해 『금강삼매경론』은 단순한 주석서가 아니라, 원효 사상의 종합적 결론이자 수행론적 지향이 응축된 저술이다.

특히 한국 불교 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저술은 신라 말 선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시기의 선 사상과 수행론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당시 한반도의 구도자들이 어떤 수행관과 사상적 기반 위에서 선을 이해하고 실천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선 사상사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금강삼매경론』은 원효 사상의 최종적 정리이자, 선을 중심으로 한 대승 불교 사상의 심화를 보여주는 핵심 저술이다. 동시에 이는 한국 불교뿐 아니라 동아시아 선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학문적 가치를 지니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⁴

4. 『금강삼매경론』의 원문과 번역과 주석

本覺利品 (634b – 637a)

無住菩薩言, “心得涅槃, 獨一無伴. 常住涅槃, 應當解脫.”

무주보살이 말하였다. “마음이 열반을 얻으면 홀로 하나가 되고[獨一] 따르는 것이 없습니다[無伴]. 항상 열반에 머무르면 당연히 해탈할 것입니다.”

此下第二遺著 於中有二 先明無住以遣有住之著 後示無得以除有得之執

이제부터는 두번째로, 집착을 버리게 함인데, 두 부분이 있다. 먼저는 머무름이 없음을 밝혀 머무름이 있다는 집착을 버리게 하고, 나중은 얻음이 없음을 보여 얻음이 있다는 집착을 제거한다.

初中有二 先問後答

⁴ 박태원(2014),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6품 해석학, 철학논총 제77집, 새한철학회, pp.384-385.

첫째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질문이고, 둘째는 답변이다.

問中言獨一者 八識轉時 成一覺故 言無伴者 人法二執 斯遠離故 無伴之覺 常住於涅槃 常住之智 解脫一切縛 有作是執 故作是問也

물음 가운데 오직 하나[獨一]라고 한 것은 팔식⁵이 변할 때 일각을 이루기 때문이고, 동반하는 것이 없게 된다고 한 것은 인집과 법집의 두 가지 집착이 이에 멀리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반하는 것이 없는 깨달음은 항상 열반에 머무르고, 항상 머무는 지혜는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하여, 그러한 집착이 생겨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佛言 常住涅槃 是涅槃縛 何以故 涅槃本覺利 覺利本涅槃 涅槃覺分 卽本覺分 覺性不異 涅槃無異 覺本無生 涅槃無生 覺本無滅 涅槃無滅 涅槃覺本無異故 無得涅槃 涅槃無得 云何有住 善男子 覺者不住涅槃 何以故 覺本無生 離衆生垢 覺本無寂 離涅槃動 住如是地 心無所住 無有出入 入唵摩羅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 “열반에 상주하는 것은 열반에 묶이는 것이니, (나) 어째서인가? (1) 열반은 본래 각⁶의 이익이고, 각의 이익은 본래 열반이다.⁷ (2) 열반의 깨달음의 속성이 곧 본각의 속성이다. (3) 깨달음의 본성에 다름이 없듯이 열반도 다름이 없으며, (4) 깨달음에 본래 생겨남이 없듯이 열반에도 생겨남이 없으며, 깨달음에

⁵ 팔식(八識): 유정(有情)이 지니고 있는 여덟 가지 심식(心識), 즉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말나식(末那識), 아뢰야식(阿賴耶識) 등. 이러한 8식에 아마라식(阿摩羅識)을 더하여 9식이라고 한다.

⁶ 각(覺) : bodhi. 음역으로는 보리. 열반의 묘한 이치를 깨달은 지혜. 구역으로는 도(道), 신역으로는 각(覺)이라고 한다. 이것은 불각과 상대되는 것으로 심성이 망념을 멀리 떠나서 비추는 작용이 환한 것을 말한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아라야식에 각과 불각의 두가지 뜻이 있고, 각에는 또 본각과 시각의 구별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만유의 본체는 본래 청정한 각체[本覺]이지만, 무시 이래로 무명의 망념에 가려져 있는 현실 상태를 불각이라고 하며, 만일 수행에 의하여 마음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을 시각이라고 한다. 은정희 송진현 역주(2004),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pp.272-273.

⁷ (다른 번역) 열반은 본각(本覺)의 이익이고, 그 깨달음의 이익이 본래 열반이다.

멸함이 없어서 열반도 멸함이 없다. 열반과 깨달음이 본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 없으며, 열반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머무름이 있겠는가? 선남자야, 깨닫게 되면 열반에 머물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본래 생겨남이 없음을 깨달아서 중생의 번뇌를 떠나고, 본래 걱정함이 없음을 깨달아 열반으로의 움직임의 떠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물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고 출입함이 없어서 암마라에 들어간다.

是答正遣有住之執 於中有二 初略破執 後廣顯理

이것은 답이니, 머무름이 있다는 집착을 바로 버리게 한 것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집착을 대략 깨뜨렸고, 뒤에는 이치를 널리 나타내었다.

(가) 간략하게 집착을 타파함

初中言常住涅槃是涅槃縛者 設有常覺住於涅槃 卽是執著 縛於涅槃 云何常住是解脫耶

처음 가운데 '열반에 상주하는 것은 열반에 묶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가령 불변의 깨달음이 있어서 열반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곧 이것은 집착으로서 열반에 속박되는 것이니, 어떻게 상주하는 것이 해탈이 될 수 있겠는가?

(나) 자세하게 도리를 드러냄

何以故下 廣顯道理 理無住故 有住違理 違理之心 非縛是何 釋意如是 於中有二 先約本覺以明無住 後約始覺 以顯無住

어째서인가 아래는 도리를 널리 나타낸 것이다. 진리는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머무름이 있으면 진리에 어긋나니, 진리에 어긋난 마음 (머무름이 있는 마음)은 속박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뜻을 해석함이 이와 같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본각에 의하여 머무름이 없음을 밝혔고, 뒤에 시각에 의하여 머무름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a) 본각에 의거하여 무주를 설명함

初中約無異義 以明無得無住 此無異義 有其四種

처음 가운데 다르지 않다는 뜻에 의하여 얻음도 없고[無得] 머무름도 없음[無住] 을 밝혔으니, 그 의미의 다르지 않음에 네 종류가 있다.

(1) 본각의 도리에 다름이 없음 [本理無異]

一者本理無異 如經涅槃本覺利 利本涅槃故 是明涅槃是本覺利 此本覺利是本涅槃 其始覺者 卽同本覺 所以無異故無得也

첫째는 본래의 이치가 다름이 없으니, 경에서 '열반은 본래 각의 이익이고, 그 이익은 본래 열반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은 열반이 본각의 이익이고, 이 본각의 이익이 본래 열반으로서, 시각이 곧 본각과 같은 것임을 밝힌 것이니,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얻음이 없다.

(2) 각분에 다름이 없음 [覺分無異]

二者覺分無異 如經涅槃覺分卽本覺分 是明涅槃衆德 卽是本覺之德 無異無得 如前說也

둘째는 깨달음의 분량(요소, 작용)이 다름이 없으니, 경에서 '열반의 깨달음의 속성이 곧 본각의 속성' 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은 열반의 여러 공덕이 바로 본각의 공덕과 다르지 않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니,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3) 일미로서 다름이 없음 [一味無異]

三者一味無異 如經覺性不異 涅槃無異 是明覺性一味無差別相 卽是涅槃之無差別

셋째는 일미로서 다름이 없으니, 경에서 '깨달음의 본성에 다름이 없듯이 열반에도 다름이 없다' 고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은 깨달음의 본성과 일미에 차별되는 모습이 없어 열반이 차별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4) 둘이 아니므로 다름이 없음 [無二無異]

四者無二無異 如經覺本無生 涅槃無生 覺本無滅 涅槃無滅 是明本覺 本無生滅 即是涅槃之無生滅

넷째는 둘이 없는 것으로서 다름이 없으니, 경에서 ' 깨달음에 본래 생겨남이 없듯이 열반에도 생겨남이 없으며, 깨달음에 멸함이 없어서 열반도 멸함이 없다' 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은 본각이 본래 생겨남과 멸함이 없으니, 곧 열반도 생겨남과 멸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由是四種無異 道理本無異故無得涅槃 是明無能得涅槃覺 次言涅槃無得者 是明涅槃無所得義 既無能得所得 何有能住所住 以之故言 云何有住 卽顯常住 不應道理

이 네 가지의 다르지 않음의 도리 때문에 '본래 다르지 않은 까닭에 열반을 얻음도 없다' 고 한 것이니, 이것은 열반의 깨달음을 능동적으로 얻는 일은 없음을 밝힌 것이다. 다음에 '열반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고 한 것은 열반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미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바도 아닌데, 어떻게 머무르는 곳이 있으며 머물 수 있음이 있겠는가? 그 때문에 '어떻게 머무름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니, 곧 상주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b) 시각에 의거하여 무주를 설명함

次約始覺以明無住 先標後釋 言覺者者 謂始覺者 釋中言覺本無生者 覺知生死本來無生 所以離着生死之垢也 言覺本無寂者 覺知涅槃本無寂靜 所以離入涅槃之動 心無所住者 不住生死及涅槃故 無有出入者 不見俗有及真空故 入唵摩羅者 一心之體 離二邊故 歸此心源 故名爲入 如是無住 方得解脫 故住涅槃不離縛也

다음은 시각에 의하여 머무름이 없음을 밝힌 것이니, 먼저 나타내고 뒤에 해석하였다. '깨달은 이'라고 한 것은 시각에 의해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해석에서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깨닫는다' 고 한 것은 생사가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 이니, 그러므로 생사에 집착하는 번뇌를 떠나게 되며, '본래 걱정함이 없음을 깨닫는다'고 한 것은 열반은 본래 걱정함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니, 그러므로 열반에 들어간다는 움직임을 떠나게 된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것은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고, '출입함이 없다'는 것은 세속의 유와 진여의 공을 보지 않는 것이다. '암마라에 들어간

다'는 것은, 일심의 체가 두 번을 떠나서 이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머무름이 없어야지 해탈을 얻으니, 열반에 머물면 속박을 떠나지 못한다.

無住菩薩言 唵摩羅識 是有入處 處有所得 是得法也

무주 보살이 말하였다. "아마라식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곳에서 증득하는 바가 있다면, 이것은 법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此下第二遣有得執 於中有四 一者正明無得 二者重遣疑情 三者領解 四者述成

다음은 두 번째로, 얻음이 있다는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얻음이 없음을 바로 밝혔고, 둘째는 의심스런 생각을 거듭 보냈으며, 셋째는 이해한 것이고, 넷째는 기술하여 이룬 것이다.

初中有二 先問後答

처음 가운데 두가지가 있으니, 먼저 묻고 뒤에 답하였다.

依前入言 如言取義 謂無垢識 有所入處 入時證得 故有所得 有作是疑 故作是問

앞에서 '들어간다'고 한 말에 의하여 말 그대로 뜻을 취하여 생각하기를, '무구식⁸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들어갈 때에 증득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다고 여기니, 이러한 의심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다.

佛言 不也 何以故 譬如迷子 手執金錢而不知有 遊行十方 經五十年 貧窮困苦 專事求索 而以養身 而不充足 其父見子 有如是事 而謂子言 汝執金錢 何不取用 隨意所須 皆得充足 其子醒已 而得金錢 心大歡喜 而謂得錢 其父謂言 迷子汝勿欣懌 所得金錢 是汝本物 汝非有得 云何可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리석은 아들이 손에 금전을 쥐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온갖 곳으로 돌아

⁸ 무구식(無垢識): 'amala'의 번역. 심식(心識) 중 제9식의 별칭. 아마라식(阿摩羅識).

다니며 오십 년을 지냈다. 가난하고 궁핍하며 곤란하고 괴로워져서 일을 구하여 몸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서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금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사용하지 않느냐? 네 뜻대로 사용하면 모두 충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 아들이 깨닫고 나서 금전을 얻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가 말하였다. '미혹한 아들아, 기뻐하지 말아라. 얻은 바의 금전은 네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니, 무엇이 기뻐할 만하겠는가?'

是答正明無得之義 於中有三 謂法喻合

이것은 답이니, 얻음이 없는 뜻을 바로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법과 비유와 종합이다.

(a) 법

初言不者 摠非有得

처음에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은 얻은 것이 아님을 총괄한 것이고,

(b) 비유

何以故下 喻顯無得 於中有四種喻 一者迷子不知有金錢 遊行貧苦喻 二者其父示子有金錢 令得充足喻 三者喜得金錢喻 四者告非有得喻

'왜 그런가' 아래는 얻음이 없음을 비유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네 가지 비유가 있으니, 첫째는 미혹한 아들이 금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고생한다는 비유고, 둘째는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금전이 있음을 알려주어 충족함을 얻게 했다는 비유며, 셋째는 금전을 얻은 것을 기뻐했다는 비유고, 넷째는 얻은 것이 아님을 일러준 비유다.

(ㄱ) 첫째 비유

初喻中言迷子者 謂諸衆生 迷自心源 如來大悲 如視一子 故喻迷子 法華窮子 局喻聲聞 此中迷子 通喻群生 手執金錢者 喻諸妄識 五縛煩惱 執着分別 覆自淨心 不知有故 遊行十方者 遍計五相及五事故 經五十年者 受五陰生五十惡故 貧者少有世間善故 窮者都無出世財故 困者或墮三途受劇苦故 苦者或生人天受輕苦故 專事求索者 求世間樂 作福業故 而以養身者 受人天樂而受用故 而不充足者 受世間樂 彌增渴愛 盛必有衰 無義利故

처음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한 것은 모든 중생이 자기 마음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니, 여래께서 크게 불쌍히 여겨 마치 외아들을 보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미혹한 아들에 비유한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곤궁한 아들⁹을 성문에 국한하여 비유하였으나, 여기서의 미혹한 아들은 모든 중생을 통틀어 비유하였다. '손에 금전을 쥐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식의 다섯 가지 박(縛)¹⁰의 번뇌 때문에 집착하고 분별하여 자기의 맑은 마음¹¹을 덮어서 그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온갖 곳으로 돌아다닌다'고 한 것은 오상(五相)¹²과 오사(五事)¹³를 두루 계략하는 것이고, '오십 년을 지냈다'는 것은 오음을 받아 오십 악¹⁴을 일으킨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세간의 선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궁핍하다'는 것은 출세간의 자량이 전혀 없는 것이며, '곤란하다'는 것은 혹 삼도¹⁵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고, '괴로워졌다'는 것은 혹 인간계와 천상에 태어나 가벼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일을 구한다'고 한 것은 세간의 즐거움을 구하여 복업을 짓는 것이고, '몸을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계와 천상의

⁹ 『묘법법화경』 제2권, <신해품(信解品)> (<<대정장>> 9책 16쪽 중단 25행 이하) 별첨1 참고.

¹⁰ 오박(五縛): 다섯가지 속박 = 1상응박(相應縛) + 4소연박(所緣縛)(同部同品, 同部異品, 異部同品, 異部異品)

¹¹ 자정심(自淨心): 자성청정심(自性清靜心)의 약칭.

¹² 오상(五相): 미혹과 깨달음의 다섯 법상. 소전상, 능전상, 상속상, 집착상, 부집착상.

¹³ 오사(五事): 다섯 가지 미혹과 깨달음의 법. 名, 相, 分別, 正智, 如如.

¹⁴ 50악=5음*10악. [오음(五陰)=오온(五蘊).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10악은, 생물을 살상하는 살생(殺生),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투도(偷盜), 간음으로 남녀의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사음(邪淫),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망어(妄語), 실없고 잡된 말을 하는 기어(綺語), 말로써 욕하거나 멸시하는 악구(惡口), 이간질하는 양설(兩舌),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탐욕(貪欲), 노여움으로 증오나 혐오에 빠지는 진에(瞋恚), 그릇된 견해에 빠지는 사견(邪見).]

¹⁵ 삼도(三途, 三塗): 지옥, 아귀, 축생.

즐거움을 받아 수용하는 것이며,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세간의 즐거움을 받아 갈애¹⁶를 더욱 증장시켜 흥성하였다가 반드시 쇠함이 있어 참된 이익이 없는 것이다.

(ㄴ) 둘째 비유

第二喻中 其父見子者 佛歸心源 同體大悲 爲諸衆生 作慈父故 有如是事者 有如初喻所說事故 而謂子言者 爲衆生說大乘教故 汝執金錢何不取用者 示有淨心 應信解故 隨意所須皆得充足者 若用淨心 本覺勝利 法身慧命 得圓滿故

두 번째 비유 가운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동체의 대비¹⁷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애로운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 것은 처음의 비유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이 있는 것이고, '아들에게 말했다'고 한 것은 중생을 위하여 대승의 가르침을 말한 것이다. '네가 금전을 쥐고 있으면서 어째서 사용하지 않느냐'고 한 것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믿고 이해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뜻에 따라 사용 하면 충족함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만일 맑은 마음을 쓰면 본각의 뛰어난 이익과 법신의 지혜 수명¹⁸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다.

¹⁶ 갈애(渴愛): 욕망, 또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 중생이 5욕(欲)에 집착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이가 물을 갈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갈애라 함. 애(愛).

¹⁷ 동체대비(同體大悲): 모든 중생을 자기 몸과 동체로 보아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며 평등 절대적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¹⁸ 혜명(慧命): 원어는 아위스마트(ayusmat). 원래 '장수(長壽)의'라는 형용사이지만, 부를 때 이름 앞에 붙여서 경어로 쓰기도 하여, 장로(長老) · 대덕(大德) · 존자(尊者) · 구수(具壽) · 정명(淨命)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혜명에 관해서 장수(長水)의 '금강경소기료회(金剛經疏記料會)' 제2권에서는, '색신은 食으로써 명(命)으로 삼고, 법신은 혜(慧)로써 명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법신의 지혜를 수명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오십삼가주(金剛經五十三家註)' 제4권에서는, '진웅(陳雄)이 말하기를, <혜명 수보리를 법화경 신해품에서 살펴보면, 혜란 것은 德을 말하고 명이란 것은 수(壽)를 말한다. 즉 장로의 이명(異名)이다>'라고 하고 있다. 【혜명慧命】 指法身以智慧爲生命. 如色身必賴飲食長養, 而法身必賴智慧以長養. 若智慧之命夭傷, 則法身之體亡失

(ㄷ) 셋째 비유

第三喻中 其子醒已者 聞大乘教 而生信解 位在地前故 而得金錢者 得入初地正通達位 證見佛性本覺利故 心大歡喜者 後得智中 念當現得 生極喜故 而謂得錢者 出觀失念 有漏心中 故起法執 謂有得故

세 번째 비유 가운데 '그 아들이 깨달았다' 고 한 것은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음과 이해를 내어 십지 전¹⁹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금전을 얻었다'는 것은 초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 바로 통달위²⁰에서 불성과 본각의 이익을 증득하여 안 것이다. '마음이 크게 기뻐 했다'는 것은 후득지 가운데 미래와 현재의 이득을 생각하여 지극한 환희를 내는 것이고, '돈을 얻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관(觀)에서 벗어나 생각을 잃어 유루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집을 일으켜서 얻음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ㄹ) 넷째 비유

第四喻中 所得金錢是汝本物者 示其所證本覺之利本來屬汝 非始有故汝非有得云何可喜者 既本屬汝 非今始得 不宜於得生着心故 汝勿欣懽者 遮其分別 謂有所得 於中生着而欣懽故

네 번째 비유 가운데 '얻은 바의 금전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물이다'라고 한 것은 증득한 바의 본각의 이익은 본래 너에게 속해 있던 것이지 비로소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니, 무엇이 기뻐할 만하겠는가?'라고 한 것은 이미

¹⁹ 지전(地前): 10지의 초지에 도달하기 이전을 말함. [십지(十地): 보살이 수행하여 성불하기까지 총 52단계의 수행 중에서 제41부터 제50 단계까지를 10지라 한다. 10지는 차례대로 초지(初地), 2지, 3지 10지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제1 환희지(歡喜地), 제2 이구지(離垢地), 제3 명지(明地), 제4 염지(焰地), 제5 난승지(難勝地), 제6 현전지(現前地), 제7원행지(遠行地), 제8 부동지(不動地), 제9 선혜지(善慧地), 제10 법운지(法雲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0지에 이르러서야 보살은 비로소 불성(佛性)을 보며 중생을 구제하고 지혜를 갖추기 때문에, 10성(聖)이라 하며 성인의 칭호를 받는다. 제41단계에 오르기 전의 보살은 지전(地前)의 보살이라 하며, 마침내 제41단계에 오른 보살은 등지(等地)의 보살, 10지에 있는 보살은 지상(地上)의 보살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십성(十聖), 십성위(十聖位), 십지위(十地位).]

²⁰ 통달위(通達位): 비로소 번뇌를 여윈 지혜를 얻어 진여의 이치를 체득하는 자리. 초지(初地).

본래 너에게 속한 것이지 지금 비로소 얻은 것이 아니니, 얻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너는 기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분별하여 얻은 바가 있다고 여겨서 그 가운데 집착을 내어 기뻐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c) 합

善男子 唵摩羅者 亦復如是 本無出相 今則非入 昔迷故非無 今覺故非入

"선남자야, 암마라라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 본래 벗어난 상도 없고 지금 곧 들어간 것도 아니다. 옛날에 미혹하였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是第三合 於中有二 摠合別合

이것은 세 번째로 종합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합한 것과 따로 합한 것이다.

ㄱ. 총론적인 합

摠合中言唵摩羅者 此云無垢 本覺本淨 性無改轉 似彼金錢性無改故 又金有四義 喻本覺中常樂我淨 通合四喻中金錢也

총괄적으로 합한 가운데 '암마라'라고 한 것은 번역하면 '무구[더러움이 없음]'다. 본각은 본래 맑아서 자성이 바뀌지 아니하니, 마치 저 금화의 자성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또 금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서 본각 중의 상·락·아·정에 비유하였으니, 네 가지 비유 중의 금전과 전체적으로 합한다.

ㄴ. 개별적인 합

別合中有四句 本無出相者 合初喻中手執金錢故 今即非入者 合第三喻而得金錢 昔迷故非無者 合第二喻 汝執金錢何不取用 是昔迷故不用 而手執故非無也 今覺故非入者 合第四喻 是汝本物 汝非有得 今覺本物 不出自心 既本不出 何得有入 非有入故 非有得也

개별적으로 종합한 가운데 네 구절이 있다. '본래 벗어난 상이 없다'고 한 것은 처음 비유 중의 '손에 금화를 쥐고 있다'는 것과 합한 것이고, '지금 곧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세 번째 비유인 '금전을 얻었다'는 것과 합한 것이다. '옛날에 미혹하였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두 번째 비유인 '네가 금전을 쥐고 있으면서 어찌서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과 합한 것이니, 예전에 미혹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네 번째 비유인 '이것은 네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합한 것이다. 본래의 재물이 자기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지금 깨달아 이미 본래 벗어나지 않았으니 어찌 들어감이 있겠는가? 들어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지 않다.

(a) 첫째 문답

無住菩薩言 彼父知其子迷 云何經五十年 十方遊歷 貧窮困苦 方始告言 佛言 經五十年者 一念心動 十方遊歷 遠行遍計

무주 보살이 말하였다. "저 아버가 자기 아들이 미혹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오십 년이 지나도록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며 빈궁하고 곤고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일러 주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십 년이 지난 것은 일념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고, 온갖 곳으로 돌아다닌 것은 두루 계탁함을 오래도록 행한 것이다."

此下重遣疑情 三番問答次第遣疑

이 아래는 의심스런 생각을 거듭 버리는 것이니, 세 번 묻고 답 하여 차례로 의심을 버렸다.

此初番者 問依喻疑 答就法遣 答意而言經五十年 喻於一念心動 十方遊歷 喻於遠行遍計 斯則一念之頃 遍計諸法 卽於此念 其父告言 告言之時 卽得醒悟 念究竟時 得無所得 如覺金錢而無所得 所以父告 非爲經久 但爲顯一念具五十惡故 喻中說經五十年耳

이것은 첫 번째 것이니, 질문은 비유에 의하여 의심한 것이고, 대답은 법에 의하여 (의심을) 버린 것이다. 대답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오십 년이 지난 것'은 '일념의 마음이

움직인 것에 비유한 것이고,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 것’은 ‘두루 계탁함을 오래도록 행한 것’을 비유한 것이니, 이렇다면 곧 일념의 사이에 모든 법을 두루 계탁한 것이다. 이 일념에 나아가 그 아버지가 일러 준 것이니, 일러 줄 때에 곧 깨달음을 얻었으며, 생각이 다 없어질 때에 얻는 바가 없게 되어, 마치 금전을 (새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아버지가 일러 준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일념에 오십 가지의 악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비유 중에서 ‘오십 년이 지났다’고 말했을 뿐이다.

答意如是 是義云何 謂由無明力而起四相 四相無明和合力故 能動一心 生住異滅 一心既動 帶此四相 是故說名 一念心動 如起信論云 自性清淨心 因無明風動 乃至廣說 於中委悉 如彼記說

답의 의미는 이와 같으니, 그 뜻이 무엇인가? 무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 상²¹을 일으키고, 네 가지 상과 무명이 화합한 힘 때문에 일심을 움직이게 하여 생·주·이·멸하게 한다. 일심이 움직이고 나서는 이 네 가지 상을 지니니, 이 때문에 ‘일념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기신론』에서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무명의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고 내지 널리 말한 것과 같다.²² 그 가운데 자세한 것은 저 『대승기신론별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²³

(b) 둘째 문답

²¹ 사상(四相): 생멸 변화하는 네 가지 양상. 생겨남(生), 존속함(住), 변화함(異), 사라짐(滅).

²² <<대승기신론>> (<<대정장>> 32책 576쪽 하단 13행.)

²³ <<대승기신론별기>> (<<대정장>> 44책 228쪽 상단 5행 이하.) 모든 심식(心識)의 상이 다 무명이나, 무명의 상이 본각의 성질을 여의지 않아서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큰 바닷물이 바람에 의하여 물결이 움직일 때,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버리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닌지라 만일 바람이 그쳐서 없어지면 움직이는 모양은 곧 없어지나 물의 젖는 성질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의 자성청정심(自性清淨心)도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일 때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어서 서로 버리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닌지라 무명이 없어지면 상속하는 것이 곧 없어지나 지혜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無住菩薩言 云何一念心動 佛言 一念心動 五陰具生 五陰生中 具五十惡

무주 보살이 말하였다. "무엇이 일념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면 오음이 모두 생기고, 오음이 생기는 가운데 오십 악을 갖추게 된다."

是第二番遣第二疑 顯所治惡 欲明一念四相 攝諸生死故 具五陰有五十惡 云何五陰具五十惡 謂識陰有八 卽是八識 受想二陰 隨識各八 行陰有九 八是相應 一不相應 色陰十七 合爲五十 言十七者 能造四大 所造十三 謂五根五塵 法處所攝 有三種色 如顯揚說 謂律儀色 不律儀色 及定自在所生色故 且就一門 立爲五十 如是五十 是眞實惡 皆是流轉違涅槃故 對彼涅槃眞實善故

이것은 두 번째 문답으로서, 두 번째 의심을 없애어 대치해야 할 악을 나타낸 것이니, 일념의 네 가지 상이 모든 생사를 포괄하기 때문에 오음²⁴을 갖추고 오십 악을 가지게 됨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어떻게 오음이 오십 악을 갖추고 있는가? 식음에 여덟 가지가 있으니 바로 여덟 가지 식이고, 수음과 상음은 식음을 따라 각각 여덟 가지가 있다. 행음에 아홉 가지가 있으니 여덟 가지는 상응이고 한 가지는 불상응이며,²⁵ 색음에 열일곱 가지가 있다. (색음) 열일곱 가지라고 말한 것은 짓는 주체인 사대와 지어진 대상인 열세 가지며, 열세 가지는 오근과 오진과 법처에 포함되는 세 가지 색, 즉 『현양론』에서 말한 율의색과 불율의색과 정자재소생색이다.²⁶ 우선 한 부문에 의하여 오십 가지²⁷를

²⁴ 陰은 五蘊의 구역이다. 식음(識陰)=식온(識蘊), 수음(受陰)=수온(受蘊), 상음(想陰)=상온(想蘊), 행음(行陰)=행온(行蘊), 색음(色陰)=색온(色蘊).

²⁵ 상응(相應)/불상응(不相應):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1권 <섭사품>에서 모든 현상을 일체(一切) 등 9종으로 요약하여 설명한다. 일체란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심(心), 심소유(心所有), 색(色), 불상응(不相應), 무위 등의 5법으로 나누어서 논하고 있다. 여기서 심과 심소유가 상응에 해당하며 네 번째가 불상응이다.

²⁶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1권 <섭사품> (<<대정장>> 31책 484쪽 상단 14-5행.) [율의색: 서원을 세우고 불살생 등의 선을 행하고 악을 그치게 하는 선계. / 불률의색: 서원을 세우고 살생 등 악업을 짓는 것 / 정자재소생색: 선정 가운데 있을 때 자유자재로 변화시켜 나타내는 색채.]

²⁷ 5온 = 8식온 + 8수온 + 8상온 + 9행온(8상응+1본상응) + 17색온(4能造+13所造(5근+5마

세웠으니, 이와 같은 오십 가지는 순전한 악으로서 모두 유전하여 열반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 열반의 진실한 선과 반대된다.

(c) 셋째 문답

無住菩薩言 遠行遍計 遊歷十方 一念心生 具五十惡 云何令彼衆生 無生一念 佛言 令彼衆生安坐心神 住金剛地 靜念無起 心常安泰 卽無生一念

무주 보살이 말하였다. "두루 계탁함을 오래도록 행하여 온갖 곳으로 돌아다녀 일념의 마음이 생겨 오십 악을 갖추었으니, 어떻게 저 중생으로 하여금 일념을 일으키지 않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히 안정시켜 금강지에 머물게 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여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하면 곧 일념을 없애게 된다."

是第三番 遣第三疑 明能治道 令彼衆生者 十信已前一切衆生故 安坐心神者 十住已去 安心三空 決定不退名安坐故 住金剛地者 初地已上 證得法身 離諸滅壞 如金剛故 靜念無起者 等覺位中 覺其動念 本來寂靜 令不起故 心常安泰者 至妙覺位 得見心源 無起無滅 本無動念 無始無終 無起滅故 常無動念安 無始終故 無不泰然 如是修行 得究竟覺 卽無生死 一念四相
 이 지 고 언 즉 무 일 념
 以之故言 卽無一念

이것은 세 번째 문답이니, 세 번째 의심을 보내어 대치하는 방법을 밝힌 것이다. '저 중생으로 하여금'이라고 한 것은 십신²⁸ 이전의 모든 중생을 말한다. '마음을 편안히 안정시킨다'는 것은 십주²⁹ 이상에서 마음을 세 가지 공³⁰에 안주시켜 결코 물러나지 않으므로

+3색)) = 50악.

²⁸ 십신(十信): 보살의 수행 계위 52위 가운데 처음의 10신위를 말함. 불법의 진리를 믿어 의심이 없는 지위임.

²⁹ 십주(十住): 52위 중 11-20위를 말함. 10신위를 지나 불지에 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주(住)라 함.

³⁰ 삼공(三空): 3해탈문, 즉 공(空) 해탈, 무상(無相) 해탈, 무원(無願) 해탈 등을 가리킴.

'편안히 안정시킨다'고 한 것이다. '금강지에 머문다'고 한 것은, 초지 이상은 법신을 증득하여 모든 괴멸을 떠난 것이 마치 금강과 같음을 말한다.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등각위 중에서 그 움직이는 생각이 본래 적정한 것임을 깨달아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하다'는 것은 묘각위에 이르러 마음의 근원은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어서 본래 움직이는 생각이 없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을 보는 것을 말한다.³¹ 일어남도 멸함도 없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하였고, 움직이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하였으며,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태연하지 않음이 없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생멸하는 일념의 네 가지 상이 없어지니, 그 때문에 '일념을 없애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爲顯是義故 起信論說言 初發意菩薩等 覺於念異 念無異相 以捨龜分別執着相故 名相似覺 如法身菩薩等 覺於念住 念無住相 以離分別龜念相故 名隨分覺 如菩薩地盡 滿足方便 一念相應 覺心初起 心無初相 以遠離微細念故 得見心性 心卽常住 名究竟覺 案云 此中得見心性 心卽常住 卽釋此經心常安泰之句 餘准釋 如前應知 上來大分 演本覺竟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신론』에서 "초발의보살 등은 생각이 변이하는 상을 깨달아 생각에 변이하는 상이 없어지게 되어 추분별집착상을 버리기 때문에 상사각이라고 하였으며, 법신보살 등의 경우에는 생각이 머무는 상을 깨달아 생각에 머무는 상이 없어지게 되어 분별추념상을 떠나기 때문에 수분각이라고 하였고, 보살지가 끝났을 경우에는 방편을 완성하여 일념이 상응하여 마음의 처음 일어난 상을 깨달아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상이 없어지게 되어 미세한 생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자성을 보아 마음이 상주하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³² 생각해 보건대, 이 가운데 '마음의 자성을 보아 마음이 상주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경의 '마음이 항상 편안

³¹ 『화엄경』에서는 중생에게 부처님과 같이 되는 데는 52위의 단계 즉, 10신위(十信位) · 10주위(十住位) · 10행위(十行位) · 10회향위(十回向位) · 10지위(十地位) · 등각위(等覺位)를 차례로 거쳐서 묘각위(妙覺位)에 이르러서는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단계에서 일관되게 닦아야 하는 수행이 바로 육바라밀임을 보여준다.

³² <<대승기신론>> (<<대정장>> 32책 576쪽 중단 20-26행.)

초발의보살: 십주의 첫째 단계 발심주에 있는 보살 / 법신보살: 초지부터 십지까지의 보살.

하고 태연하다'고 한 구절을 해석한 것이니, 나머지 구절은 여기에 준거하여 앞서와 같이 해석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본각을 설명한 부분을 마친다.

c) 이해시킴

無住菩薩言 不可思議 覺念不生 其心安泰 卽本覺利 利無有動 常在不無 無有不無 不無不覺 覺知無覺 本利本覺 覺者清淨無染 不變不易 決定性故 不可思議 佛言 如是

무주 보살이 말하였다.

"불가사의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연한 것은 바로 본각의 이익입니다. 그 이익은 움직임이 없어서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지만, 없어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며,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나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이익이며 본래의 깨달음이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으며,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과 같다."

此是第三領解 第四述成 不可思議者 摠領歎深 下別領解 於中有二 先領言句 後領義理

이것은 세 번째 이해시키고 (깨닫는 것) 네 번째 마무리를 짓는 것 (기술하여 이루는 것)이다. '불가사의하다고 한 것은 총괄적으로 이해하여 심오함을 찬탄한 것이고, 아래는 따로 이해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말을 이해한 것이고, 뒤는 뜻을 이해한 것이다.

(a) 이해한 연구

言覺念不生其心安泰者 領前靜念無起 心常安泰之句 此是始覺之究竟處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연하다'고 말한 것은 앞의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태연하다'고 한 구절을 이해한 것이니, 이것은 시각이 완성된 경지다.

(b) 이해한 의리

下頷義理云 卽本覺利者 頷無始覺異本覺義 如論說云 若得無念者 卽知心相生住異滅以無念等故 而實無有始覺之異 以四相俱時而有 皆無自立 本來平等同一覺故

다음은 뜻을 이해한 것이니, '곧 본각의 이익이다'라고 한 것은 시각이 본각과 다름이 없다는 뜻을 이해한 것이다. 이것은 『기신론』에서 "만일 무념을 얻으면 곧 심상의 생·주·이·멸을 알게 되니, 무념과 같아지기 때문이며, 실제로 시각의 차이가 없게 되니, 네 가지 상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어서 본래 평등하여 본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案云 實無始覺之異者 是釋經中 卽本覺利之句 四相俱時而有 皆無自立 本來平等者是釋經中 利無有動

생각해 보건대, '실제로 시각의 차이가 없다'고 한 것은 경 가운데 '본각의 이익이다'라고 한 구절을 풀이한 것이고, '네 가지 상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어서 본래 평등하다고 한 것은 경 가운데 '그 이익은 움직임이 없다'고 한 것을 풀이한 것이다.

如是始覺覺知無異故 以能得常在不無 言常在者 直謂不無 然此中言常而無當有故言無有不無

이와 같이 시각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여 없는 것이 아니니, '항상 존재한다'고 한 것은 바로 '없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항상'이라고 말하였지만, 유(有)에 해당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지 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既無當於有始覺故 雖不無覺而不有覺 故言不無不覺 覺知如是無覺道理 卽知始覺不異本覺故覺知無覺本利本覺

이미 시각이 있다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깨달음이 없지 않으나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지 않으나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깨달음이 없는 도리를 알면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이익이며 본래의 깨달음이다'라고 하

였다.

如是究竟覺知之者 遠離無明所覆 故清淨無染 清淨者 本來淨故 無染者 今離染故 永無生住異滅 故不變不易 不易者 無生住故 不變者 無異滅故

이와 같이 완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은 무명이 가리우는 것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다' 고 하였으니, '청정하다'는 것은 본래 깨끗하기 때문이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러움을 떠났기 때문이다. 영구히 생 · 주 · 이 · 멸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생 · 주가 없기 때문이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 멸이 없기 때문이다.

若如是者 卽同眞際等於法性 故言決定性故 既同平等離言絕慮 故言不可思議 前已言不思議 今重言不思議者 亦不可思議 於不可思議故

만일 이와 같이 된다면 곧 진제와 같아지고 법성과 같아지기 때문에 '결정성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미 똑같이 평등하여 언설을 떠나고 사려를 끊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하였다. 앞에서 이미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거듭 '불가사의하다' 고 말한 것은 불가사의한 것에 대하여 또한 사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d) 마무리를 지음

佛言如是者 第四述成文 如前所領解 不違道理故

'부처님께서 네 말과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것은, 네 번째 기술하여 이루는 글이니, 앞에서 이해한 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5. 『금강삼매경론』의 내용과 분석

『금강삼매경』은 총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서품」, 제2 「무상법품」, 제3 「무생행품」, 제4 「본각리품」, 제5 「입실제품」, 제6 「진성공품」, 제7 「여래장품」, 제8 「총지품」이 그것이다.

원효는 「금강삼매경」 8품을 서분, 정설분, 유통분의 세 범주로 분류하는 동시에, 정설분은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을 설하는 「무상법품」, 「무생행품」, 「본각리품」, 「입실제품」, 「진성공품」, 「여래장품」의 6품과 이에 대한 의심을 총괄하여 버리게 하는 총지품으로 구성된다고 분류한다.

각 품명에 관한 원효의 뜻풀이에 의하면 「무상법품」은 무상관을 밝히는 것이고, 「무생행품」은 무생행을 나타내는 것이며, 「본각리품」은 본각에 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입실제품」은 허망으로부터 진실에 들어가는 것이며, 「진성공품」은 일체의 행위가 진성의 공함에서 나옴을 밝히는 것이고, 「여래장품」은 한량없는 문이 여래장에 들어감을 나타낸 것이다.

	은정희 ³³	김호귀 ³⁴
무상법품	무상(無相)이라는 것은 무상관(無相觀)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상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다. 다음에 법(法)이라고 말한 것은 관찰의 대상이 되는 법으로서 일심(一心)의 법을 말한다.	무상(無相)은 무상관(無相觀)이다. 곧 분별상을 타파하는 것은 모든 선수행의 출발이고 나아가서 그 완성이기도 하다. 때문에 원효는 법견을 가리키는 심상(心相)과 아견을 가리키는 아상(我相)에 대한 집착을 떠나서 공의 무분별상[無相]의 경지에 들어가면 마음이 텅 비고 탁 트여 모두 결정성을 터득하여 번뇌를 단제하고 유루혹을 탕진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무상법품의 법(法)은 관찰되는 법으로서 일심법을 가리킨다. 이로써 원효는 일각의 여래장이 펼쳐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무상관이란 총지품을 제외한 여섯 품 가운데 제일분의 무상이면서, 소관법이란 여섯 품 가운데

³³ 은정희 송진현 역주(2004),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pp.15-16.

³⁴ 김호귀 옮김(2022), 『금강삼매경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pp.15-18.

		<p>제일문의 법이다. 이처럼 무상법품에서는 무상과 법의 두 가지를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무상법품에서는 법을 다시 심과 법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주안점을 법상의 측면에다 두고 그 법상을 해탈할 것을 설명한 까닭에 해탈보살이 등장한다.</p>
<p>무생행품</p>	<p>보살의 관행이 성취되었을 때, 자신의 관행하는 마음을 알아서 이치에 따라 수행하되,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며,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증익변(增益邊)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무생(無生)이라고 말한 것이니, 일어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손감변(損減邊)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행(行)이라고 말한 것이니, 비록 번뇌에 얽매인 행위[有行之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번뇌를 떠난 행위[無行之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	<p>「무생행품」은 무생법인의 도리와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에 대한 설법이다. 이것은 무분별상을 터득한 보살에게 관행이 성취될 경우에 보살은 관심을 이해하게 되는데, 순리대로 수행하여 발생하는 유생의 심도 없고 무생의 심도 없으며, 유행도 없고 무행도 없다. 다만 증익변을 벗어나기 위하여 무생이라고 가설한 것이므로 유생에 대해서도 마음을 발생하지 않고 무생에 대해서도 마음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감변을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유생을 가설한 것이므로 비록 유행의 행위는 없을지라도 무행의 행위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선의 수행에서 지향하고 있는 무집착의 경지는 무생심에 근거한 무생행이 라는 의미에서 「무생행품」이라 하였다. 이처럼 「무상법품」과 함께 「무생행품」은 깨달음을 향하는 속성과 그 성취라는 점에서 자리행에 속한다. 「무생행품」에서도 심과 법을 판별하지만 「무상법품」과는 달리 주안점을 심에 두고 설명한 까닭에 심왕보살이</p>

		등장한다.
본각리품	<p>모든 중생은 무시로부터 무명의 지나긴 밤 속에서 망상의 큰 꿈을 꾸고 있다. 보살이 무생을 얻었을 때, 중생은 본래 걱정하여 바로 본각인 일여(一如)의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본각의 이익으로써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p>	<p>『본각리품』은 본각 곧 일본각과 본리 곧 시각에 대하여 설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무생심에 근거한 무생행에 의하여 본각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바야흐로 일체중생을 널리 교화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익을 베풀어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무생행품」을 설한 다음으로 무주의 경지에서 본각과 본리에 대하여 터득해도 터득함이 없으므로 무주보살이 등장하여 연설한다. 일체의 유정은 시작이 없는 시절로부터 무명의 긴 밤에 빠져서 망상의 대몽을 꾸다. 이에 보살이 일미관행을 닦아서 무생법인을 터득하고서 중생의 경우에 본래 걱정하여 그대로 본각인 줄을 통달하여 일미의 침상에 누워 본각에 근거한 본리으로써 중생을 제도 하려는 이타행으로 나아간다.</p> <p>「본각리품」은 「서품」의 뜻에 의하면 경전의 제목이 일미 • 진실 • 무상 • 무생 • 결정 • 실제 • 본각 • 이행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등장해야 하지만, 무상과 무생의 뜻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바로 뒤를 이은 까닭에 「입실제품」 앞에 등장하였다. 곧 본각은 모든 사람들의 법신이고 이행은 곧 모든 사람들의 법성이므로, 법성은 생 • 멸이 없고 또한 불생 • 불멸의 작용 아님이 없으면서 무생의 뜻을 드러내고,</p>

		<p>법신은 상이 없고 상의 작용 아님이 없으면서 무상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본각리품」에는 무상과 무생을 두루 성취한 바탕에서 설명되어 있다.</p>
<p>입실제품</p>	<p>실제라는 말은 허망한 것을 떠난 궁극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환화(幻化)를 떠나 완전하기 때문에 실제라고 하였고, 가르침에 의거하여 이치로 (실제에) 들어가고 행위로 (실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써 범위를 삼고, 두 가지의 들어감[理入과 行入]은 들어감이 없는 들어감이기 때문에 입실제라고 한 것이다.</p>	<p>「입실제품」은 깨달음의 세계인 실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라는 말은 허환을 떠나 있다는 것으로 구경의 뜻이다. 허환을 떠나 있는 구경이기 때문에 실제라 말한다.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깨달음과 그 실천으로서 이입은 깨달음에 해당하고 행입은 그 실천에 해당한다. 이로써 이입과 행입은 선수행의 수증과 관계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효는 이입에 대해서는 십신위 · 십주위 · 십행위 · 십회향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여 십지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행입에 대해서는 지상의 십지보살이 자리행과 이타행을 더불어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p> <p>「입실제품」에서 말하고 있는 이입과 행입의 이입은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에 드러나 있듯이, 보살행으로 나아가는 것과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곧 교학에 의거하여 깨닫는 것으로 이입하고 그것을 육바라밀로 실천하는 행입이기 때문에 입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는 경계가 없음을 가지고 실제의 경계로 삼고, 이입과 행입은 깨달음에 들어감과 실천이 없음을 가지고</p>

		<p>깨달음에 들어가고 실천하기 때문에 「입실제품」이라 하였다. 이런 점에서 「입실제품」은 앞의 「본각리품」과 더불어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심을 일깨워 주고 대승심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정진토록 하는 까닭에 이타행의 보살도에 통한다.</p>
진성공품	<p>진여의 법은 모든 공덕과 모든 수행의 덕을 갖추고 있는 본성이 되기 때문에 진성이라고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진성은 모든 명칭과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진성공이라고 한 것이다. 이 진성은 개념을 떠나고 자성을 떠나 있으니, 개념을 떠났다는 것은 망상을 떠난 것이고, 자성을 떠났다는 것은 진성을 떠났다는 것이다. 망상을 떠났기 때문에 망상이 공하고, 진성을 떠났기 때문에 진성 역시 공하다. 이 때문에 진성공품이라고 한 것이다.</p>	<p>「진성공품」은 이근자를 위해서는 자세하게 설하고 둔근자를 위해서는 간략하게 설한다. 그 근거는 일체중생이 진여의 자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진여법은 일체중생에게 모든 공덕과 더불어 모든 수행의 덕을 갖추고 본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성이라 말한다.</p> <p>바로 그 진여자성은 모든 명칭과 형상을 떠나 있으므로 진성공이라 말한다. 또한 이 진성이 형상을 떠나 있다는 것은 허망한 상을 떠나 있는 것이고, 자성을 떠나 있다는 것은 자성이라는 분별념을 떠나 있는 것이다. 허망한 상을 떠나 있으므로 허망한 상이 공하고, 자성을 떠나 있으므로 진성도 역시 공하므로 진성공이라 말한다. 이 「진성공품」에서는 이처럼 상과 성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뜻으로 품의 명칭을 삼는다.</p> <p>원효는 중생을 근기에 따라 나누어 이근자를 위해서는 삼취정계가 진성으로 성취되어 있음을 설하고, 수행의 덕목은 진성으로 성취되어 있음을 설한다.</p>

		<p>이처럼 여래의 가르침은 진여도리에 부합하고 보살계위는 본각과 본리로부터 나온다고 설하여 신위 · 사위 · 수위 · 행위 · 사위에 대하여 그 행상과 실천법을 설명한다. 이로써 모든 분별을 떠나 있는 것이야말로 진여의 본의로서 분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형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고요함을 말미암아 기동하지 않는 선정을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곧 진여선이라 말한다. 다섯 가지 수행의 덕목은 자리이고, 이근자와 둔근자를 위해 자세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설하는 것은 이타행이다.</p>
<p>여래장품</p>	<p>진여과 세속이 다름없는 하나의 여실한 법은 모든 부처가 귀의하는 곳이므로 여래장품이라고 하였다. 이 품에서는 한량없는 법과 모든 행위가 여래장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니, 들어가는 곳[所入]에 의거하여 여래장이라고 한 것이다.</p>	<p>「여래장품」은 진제와 속제가 둘이 아닌 일실의 법은 제불이 돌아가는 곳이므로 여래장이라 말한다. 이 「여래장품」에서는 무량한 법문과 일체의 수행이 여래장으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음을 설명한다. 때문에 제법 곧 선리와 제행 곧 선행은 똑같이 같은 도리에 들어감을 설명하는데, 제법은 일실의에 들어 있고, 제행은 일불도에 들어 있음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에 「여래장품」은 수행과 수행의 궁극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앞의 「진성공품」과 더불어 인을 섭수하여 과를 성취하는 까닭에 본각으로 돌아가는 깨달음과 본각으로부터 교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자리행과 이타행이 어우러진 가르침에 속한다.</p>

6. 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특징과 영향

원효(元曉, 617~686)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그의 사상적 영향력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불교 전반에 걸쳐 깊은 의의를 지닌다. 특히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서이자 그의 말기 사상을 집약한 대표적 저작으로 평가된다.

이 저술에서 원효는 유식과 중관 등 서로 다른 불교 사상 전통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일심(一心)의 철학을 바탕으로 화쟁(和諍)하고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사상 체계로 정립하였다. 이는 다양한 교학을 회통하고 통합하려는 원효 특유의 사유 방식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금강삼매경론』의 이러한 특징은 단순한 주석서의 범주를 넘어 독자적인 철학적 깊이를 인정받게 했으며, 후대 중국 불교에서는 주석서인 소(疏)가 아닌 그 위상이 논서[論]로 격상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저술은 동아시아 불교 사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핵심 문헌으로 위상을 확립하였다.

7. 별첨 1. 『법화경』 「신해품」³⁵

1장 법을 듣고 기뻐하다

1

이때, 거룩한 수행자인 장로수보리와 마하가전연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건련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법을 듣고,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먼 훗날에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수기 주심을 듣고 감탄하여 떨듯이 기뻐하였다.

³⁵ <https://www.mrmr.or.kr/%EB%AC%98%EB%B2%95%EC%97%B0%ED%99%94%EA%B2%BD/%EB%B2%95%ED%99%94%EA%B2%BD-2%EA%B6%8C-%EC%A0%9C4-%EC%8B%A0%ED%95%B4%ED%92%88>

2장 뜻을 펴서 믿게 하다

1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걷어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앉아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대중 가운데 상수로서 나이가 들어 육신이 노쇠하니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세속적인 피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다.」 하여 다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존께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때 설법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몸이 피곤하여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으른 마음을 일으킨 나머지 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오로지 공에 의해 생긴 것으로 원래부터 형상이 없으며 그 실상의 세계는 인연의 조작을 넘어선 상주 불변의 존재이다.」 하는 따위의 생각에만 사로 잡혔을 뿐, 보살의 법과 신통에 즐거워함과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삼계에서 벗어나 편안한 경지인 열반을 얻도록 하셨으며, 또 저희들이 나이 이미 늙어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려고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설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는 동경과 서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나이다.

2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수기 주심을 직접 듣고 마음이 크게 기뻐 지금까지 전혀 경험치 못한 즐

거움을 얻었나이다. 지금 뜻밖에 아주 드문 법을 들으니 매우 기쁘고 즐거우며, 크고 좋은 이익을 얻으니 구하지 아니한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저절로 얻은 것과 같나이다.

3장 비유하여 경사를 설하다

1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밝히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지방에 가서 오래 살다보니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이 지나갔나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우 가난하여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옷과 밥을 구하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가게 되었나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찾아 다니다가 만나지 못하고 하는 수없이 어느 도시에 머물러 살게 되었나이다. 그 아버지는 부자여서 재물이 한량없으니, 금·은·유리·산호·호박·파려·진주 등이 창고마다 가득하였고, 남종·여종·상노·고용인·사무원들을 많이 거느렸으며, 코끼리·말·수레와 소와 양이 무수히 많았고, 재물이나 곡식을 거래하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어서 장사꾼과 고객이 매우 많았나이다.

그때,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아들은 여러 지방과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들어오게 되었나이다.

아버지는 아들과 이별한 지 오십여 년이 지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지만 한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혼자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걱정하였나이다.

「나는 이제 늙고 자식은 없으니 만일 죽게 되면 창고마다 가득한 금·은의 진귀한 보배를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면서 은근히 아들을 기다렸으며, 다시 생각하되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서 재산을 전해 주게 되면 마음이 기뻐서 다시는 근심과 걱정이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2

세존이시여, 그때 빈궁한 아들은 품팔이를 하며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의 대문앞에 이르렀나이다.

3

아들이 대문 앞에서 멀리 집안을 살펴보니 보기에도 고귀한 분이 좋은 의자에 걸터앉았는데 보배케로 발을 받쳤고, 신분이 높은 바라문과 왕족과 거사들이 모두 공경하며 둘러서서 모셨으며, 천만 냥이나 되는 값진 진주·영락으로 몸을 장엄하였고, 시종과 하인들이 흰 총채를 들고 좌우에 서서 시중들고 있었으며, 좋은 천으로 지어진 천막으로 위를 덮고 아름다운 깃발을 많이 드리웠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흘렸으며, 보물들을 늘어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장엄한 일들이 위엄과 덕이 높아 보였나이다. 빈궁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을 가진 줄을 알고는 곧 두려운 생각을 품어 이곳에 온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저분은 틀림없이 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것이다. 그러니 이곳은 내가 품팔이 할 곳이 아니로다. 차라리 가난한 마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이 낫겠구나. 만일 이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혹 눈에 띄어 붙들리게 되면 나를 잡아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르겠구나.」 하고는 빨리 달아났나이다.

이때, 대부호 장자는 사자좌에서 자기 아들을 즉시 알아보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곧 생각하기를 「나의 창고마다 가득찬 재물을 이제는 전해줄 사람이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만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만날수가 없더니, 이제 스스로 찾아왔으니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도다. 나는 비록 늙었으나 재산을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노라.」 하고 곧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도록 하였나이다.

그때, 심부름꾼이 뛰어가서 잡으니 그 빈궁한 아들이 놀라서 크게 외치기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 붙들어 가나이까.」 하였나이다. 심부름꾼이 더욱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데려오려 하니, 그때 빈궁한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아무런 죄도 없이 붙잡혔으니 반드시 죽이려는 것이다.」 그러자 더욱 놀랍고 무서워서 그만 땅에 넘어져 기절해 버렸나이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심부름꾼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올 것은 없다. 그 얼굴에 냉수라도 끼얹어 깨어나게 하고 제정신이 들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고 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작고 못한 줄을 알고, 자기와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과는 어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짐작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자기 아들인 줄 알지마는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놓아줄 터이니 너의 마음대로 가거라.」 하였나이다.

빈궁한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땅에서 일어나 어느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였나이다.

4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타일러서 데려오려고 방편을 써서 모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기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품삯은 다른 데보다 배로 준다고 하여라. 만약 가난한 사람이 허락하면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되, 만일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거름을 치우는 일이라 말하고 우리 두 사람도 그대와 함께 일을 한다고 하여라.」

이때, 두 사람은 즉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키는 대로 말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빈궁한 아들이 그들을 따라가 선금을 받고 거름을 치우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는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문으로 아들을 바라보니 몸은 말라 야위었고 흙과 오물이 온몸에 가득하여 더럽고 불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지라, 아버지는 곧 진주목 걸이와 좋은 의복과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허름하고 때묻은 옷으로 갈아 입고, 흙과 먼지를 몸에 바르고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나가 여러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하면서 이러한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나이다.

그리고는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항상 여기에서 일을 하여라. 그러면 품삯도 올려줄 것이요, 또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 그릇·쌀·밀가루·소금·장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어려워하지 말고 말하여라. 늙은 하인들이 있어서 쓸 일이 있으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늙었고 너는 아직 젊었으며, 너는 일할 적에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속이거나 원망하는 말이 전혀 없으니 다른 일꾼들처럼 그런 나쁜 버릇이 있음을 보지 못하겠더라.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처럼 생각하겠다.」 하면서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그때, 가난하고 험벗은 아들은 이런 귀여움과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뻐으나 전과 같이 머슴살이하는 천한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하며 이십 년 동안을 항상 거름만 치우고 있었나이다.

이렇게 지낸뒤에 마음을 서로 알고 믿게 되어 안과 밖을 어려움 없이 드나들면 서로 거처하는 곳은 여전히 그 전과 같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나서 죽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였나이다.

「나에게는 지금 금은 보배가 많이 있어 창고 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물과 받고 갚아야 할 것을 네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여라. 나의 뜻이 이러하니 너는 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여라. 왜냐하면 지금은 나와 네가 서로 남남이 아니므로 부디 이 보물들을 굳게 지켜 허비하지 말고 잃지 않도록 하라.」

이때, 빈궁한 아들은 즉시 명령을 받고 금은보배의 여러 가지 재산과 창고를 맡았으나, 한 가지도 욕심을 내지 않고 거처하는 곳도 예전 그대로이며, 천하고 못났다는 마음 또한 아직 버리지 않고 있었나이다.

다시 얼마를 지난 뒤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커져서 큰 뜻을 가지게 되어 지난날의 비천하고 못났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 아버지가 죽을 때에 이르러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대신과 무사들과 거사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이 다 모인 뒤에 이렇게 선언하였나이다.

「여러분은 마땅히 아시라.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았으나, 어느 성 안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오십여 년 동안 외롭게 떠돌아다니며 온갖 고생을 다 하였소. 이 아이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내 본래 이름은 아무개요. 예전부터 본래 있던 성에서 무척 걱정하며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소. 이 아이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이니,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이 아들의 소유가 되며 먼저부터 주고 받던 것도 모두 이 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오.」

세존이시여,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것을 얻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던 제 보배창고가 저절로 들어왔도다.」 하였나이다.

4장 앞의 비유를 통합하다

1

세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곧 여래이시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같사오니, 여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하시었나이다.

2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의 괴로움 때문에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 소송법을 좋아하였나이다.

3

오늘날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롱거리인 거름으로 생각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었으나, 저희들은 그 속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기쁘고 즐거워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곧 생각하기를 「부처님 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인연으로 얻은 것이 매우 많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변변치 못하여 부질없는 욕망에 얽매여서 소송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시면서도 내버려두시고 「너희들도 마땅히 여래의 지견인 보배의 창고가 있느니라.」고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고, 방편으로 여래의 지혜를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열반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겨우 받고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만족하여 겨우 받고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만족하여 대승법을 구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나이다.

저희들은 또 여래의 지혜로 인하여 모든 보살들에게 열어보이며 설법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서원을 세운적이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이 보잘것없는 소송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으로 저희들의 근기에 따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참된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4

이제서야 저희들은 세존께서 부처님의 지혜에 아낌이 없으신 줄을 알았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전부터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었지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송의 가르침에 의해 해탈을 얻는 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그것에 알맞는 가르침을 설하셨을 뿐이옵니다. 만일 저희들에게 더 높고 큰 깨달음인 대승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승법을 설해주셨을 것이옵니다.

지금 이 법화경에서 오직 일승만을 말씀하시고 예전에 보살들 앞에서는 성문들이 소송의 가르침을 좋아한다고 나무라셨으나, 부처님께서 참다운 대승법으로 교화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본래부터 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이르렀으니, 부처님의 아들이로서 얻을 것을 모두 얻었나이다.”

이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5장 환희용약 계송으로 읊다

1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의 말씀듣고
기쁘고도 즐거우며 없던법을 얻나이다

2

성문들도 성불한다 부처님이 설하시니
위가없는 보배더미 안구해도 절로얻네

3

비유컨대 어린아이 철이없고 무지하여
아비떠나 도망하여 다른땅에 멀리가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오십년을 살았거늘
그아비는 걱정되어 사방으로 찾았었네
아들찾던 지친몸이 한성안에 머물면서
큰집하나 지어놓고 오욕락을 즐기나니
그집주인 큰부자라 많은금과 은들이며
자거마노 진주유리 말과소와 코끼리와
양과연과 수레들과 논과밭과 종들이며
하인들과 소작인들 많고많아 끝이없고
주고받는 이익들이 타국까지 미쳤으며
장사꾼과 고객들이 그문앞에 줄을섰네
천만억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하며
임금이나 왕족들이 항상공경 하는바요
여러신하 명문호족 한결같이 공경하니
이와같은 인연으로 오고가는 사람많고
부유하고 잘살아서 큰세력도 가졌지만

나이들고 늙어가니 아들생각 더욱간절
자나깨나 생각하다 죽을때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그자식은 떠나간지 오십여년
창고속에 쌓인재물 어찌하면 좋을건가

4

그때저기 궁한아들 옷과밥을 구하려고
이마을서 저마을로 이나라와 저나라로
어떤때는 얻어먹고 어떤때는 얻지못해
굶주리고 못먹어서 옴과버짐 생겼으며
이곳저곳 헤매다가 아버사는 성에달아
품팔이로 전전하며 아버지집 이르렀네

5

그 때 에 아버장자 자기집의 문안에서
보배휘장 둘러치고 사자좌에 앉았는데
권속들이 둘러앉고 여러사람 호위하며
그중어떤 사람들은 금은보물 계산하고
주고받는 많은재물 출납부에 기록하네
아버지의 존엄함을 궁한아들 바라보고
저사람은 국왕이나 또는왕이 분명하니
내가여기 왜왔던가 두렵고도 무섭구나
다시생각 하여보니 여기오래 있다가는
꿈쩍없이 붙들리어 강제노동 당하리라
이와같이 생각하고 정신없이 도망하여
빈손으로 찾아가서 품팔이를 하려는데
바로이때 아버지는 사자좌에 높이앉아
저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인줄 바로알아

심부름꾼 즉시보내 붙들어서 오게하니
궁한아들 놀래어서 기절하여 쓰러졌네
이사람이 날잡으니 나는이제 죽었노라
밥과옷을 구하려다 이모양이 되었구나

6

자기아들 어리석어 아버말을 믿지않고
아버인줄 모르는것 그장자가 짐작하고
방편다시 베풀어서 다른사람 보내면서
애꾸눈에 덕이없는 못난사람 시키는말
너는가서 말하기를 내게와서 일을하면
거름이나 치게하고 품삯곶을 준다하라
궁한아들 그말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거름치는 일도하고 집안똥을 청소하네
부자장자 어느하루 자기아들 내다보니
어리석고 못난것이 천한일만 좋아하여
아버지인 그장자는 허름한옷 바꿔입고
거름치는 기구들고 아들한테 다가가서
방편으로 하는말이 부지런히 일잘하면
품삯을더 올려주고 손과발에 바를기름
음식이나 이부자리 풍족하게 줄것이다
이런말로 타이르고 부지런히 일을하라
너는나의 아들같다 부드럽게 말을하네
그장자가 지혜있어 자유롭게 출입토록
이십년을 지내면서 집안일을 보게하고
금과은과 진주파려 보물창고 보여주며
주고받는 모든물건 도맡아서 보게하나

그아들은 변함없이 대문밖에 붙어있는
초막에서 잠을자며 체스스로 생각하되
나는본래 가난하여 가진물건 없다하네

7

아버지는 아들마음 점점넓게 열림알고
그재산을 물려주려 친척들과 국왕들과
대신들과 무사들과 거사들을 모아놓고
대중에게 하는말이 이는나의 아들인데
나를떠나 멀리가서 오십년을 지내더니
우연하게 날찾아와 이십년이 또지났소
지난날에 한성에서 이자식을 내가 잃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이아들을 찾느라고
무진애를 쓰던끝에 여기까지 온것이오
내가가진 모든것은 집이거나 하인이나
아들한테 전해주어 체뜻대로 쓰게하리
가난하고 궁한아들 뜻과마음 좁고적다
이제와서 아버지의 큰재산을 받게되니
많은집과 많은재산 한량없는 금은보화
매우크게 기뻐하며 미증유를 얻었더라

8

부처님도 우리들이 소송법을 즐김알고
너도성불 하리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가지 무루법을 저희들이 얻었다고
소승이룬 성문이라 항상말씀 했나이다

9

부처님이 저희에게 위없는도 말씀하며

이가르침 잘배우면 성불한다 하시기에
저희들은 말씀대로 보살들을 위하여서
여러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들과
이야기와 변재로써 위없는도 말했더니
그때모든 불자들이 저희들의 법문듣고
밤낮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닦았었네
이때여러 부처님이 수기주며 하시는말
너희들은 오는세상 성불하여 부처된다
시방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런 대승법장
보살들만 위하여서 참된이치 설법하고
저희들을 위하여선 아무말씀 안하시니
마치저기 궁한아들 아버지께 가까이가
모든보물 맡았으나 가질생각 전혀없듯
저희들도 부처님의 법보장을 연설하나
구하는뜻 없던것은 역시그리 하옵니다
저희들이 속으로는 변뇌없어 지는것을
체스스로 생각하여 만족하다 여기웁고
이것알면 그만이요 다른일은 없다하고
불국토를 맑게하고 중생들을 교화함은
저희들이 들었어도 즐거운맘 없었다네
그까닭을 말하오면 이세간의 온갖법은
평등하고 조화되어 생도없고 멸도없는
영 원 한 존재이며 작고큰것 다없으며
차별없고 변뇌없어 인연초월 한것이라
이런생각 하고보니 즐거운맘 없나이다
저희들이 오랜세월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마음없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저희들이 얻은법이 구경이라 생각했네
저희들이 오랜세월 공한법을 닦아익혀
육계색계 무색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최후몸의 유여열반 얻었노라 생각하며
부처님의 교화받아 참된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은혜 갠다고 했나이다
저희들이 불자에게 보살법을 말하여서
불도연게 하면서도 원하는맘 없었으니
도사께서 버려두고 저희마음 아시므로
참된이익 있느니라 권하시지 아니하네
아들뜻이 좁고적음 아비장자 이미알고
그방편의 힘으로써 그마음을 항복받고
아들마음 크게한후 많은재산 물려주듯
부처님도 이와같이 희유한일 나타내서
소승법을 즐김알고 방편의힘 쓰시어서
작은마음 조복받고 큰지혜를 가르치네

10

저희들이 오늘에사 미증유를 얻었으니
바라던일 아니지만 저 절 로 얻었으며
한량없는 보배얻은 궁한아들 같나이다
세존이여 제가이제 도를얻고 과를얻어
무루법에 머물면서 청정한눈 얻은것은
저희들이 오랜세월 청정계율 지니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과보를 얻었으며
법왕의법 가운데서 오랜수행 닦은공덕

이제서야 미혹없는 큰과보를 얻나이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성문 되었으니
부처님법 소리로써 온갖것을 듣게하며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나한 되었으니
모든세간 하늘이나 사람들과 마군범천
많은대중 가운데서 널리공양 받나이다

6장 부처님 은혜를 갚다

1

부처님의 크신은혜 희유하게 나투시며
중생들을 제도하사 이익얻게 하오시니
억천겁에 그은혜를 누가능히 갚으리까
손발되어 받들면서 머리숙여 예경하며
온갖정성 공양해도 그은혜는 못갚으며
머리위에 받들거나 등에라도 업고다녀
항하모래 오랜세월 마음다해 공양하고
맛이좋은 음식들과 한량없는 의복들과
아름다운 이부자리 효과좋은 탕약이며
우두전단 좋은향과 여러가지 보배로써
넓고높은 탑세우며 옷을벗어 땅에깔고
이와같은 여러일로 항하사의 오랜겁을
정성다해 공양해도 그은혜는 못갚으리

2

부처님은 희유하사 한량없고 가이없어
생각조차 할수없는 신통력을 나투시며

모든미혹 멸하시고 최고진리 깨달아서
모든법의 왕으로서 마음적은 중생위해
최고진리 숨겨두고 낮은법을 설하시며
아상많은 범부에게 마땅하게 설하시네

3

부처님들 모든법에 자유자재 하시어서
중생들의 모든욕락 가지가지 알으시며
그 뜻 과 힘에따라 감당할바 알으시고
한량없는 비유로써 미묘한법 말씀할새
지난세상 중생들의 속세선근 따르셔서
그의근기 성숙함과 성숙못함 알으시어
가지가지 헤아리사 분별하여 아시고는
일불승을 설하시려 방편으로 삼승쓰네

<신해품 끝>

8. 참고문헌

1. 원전류

元曉, 『金剛三昧經論』, 『韓佛全』 45.

_____, 『金剛三昧經論』, 『大正藏』 34.

『金剛三昧經』, 『大正藏』 9.

『妙法蓮華經』, 『大正藏』 9.

2. 단행본류

은정희 · 송진현 역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서울: 일지사, 2004).

김호귀 옮김, 『금강삼매경론』, (서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3. 논문류

김지연, 「북미불교의 원효 인식과 이해 : 로버트 머스웰, 박성배, 찰스 밀러, 리차드 맥
브라이드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9호, 불교학연구회, 2016.

박대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6품 해석학」, 『철학논총』 제77집, 새한철학회,
2014.

최유진, 「원효와 중국불교」, 『동아시아불교문화』 36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